

 교육부	<h1>보도자료</h1>
 한국교육개발원 <small>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</small>	교육부 홍보담당관실 ☎ 02-2100-6588 한국교육개발원 홍보기획실 ☎ 02-3460-0628

[자료문의] 교육부 ☎ 02-2100-6322 교육통계과장 최수진, 담당 이세연, 성미정
 교육부 ☎ 02-2100-6975 학교폭력대책과장 김영진, 담당 최지웅
 [자료문의] 한국교육개발원 ☎ 02-2058-2891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장 박효정, 담당 이희현

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

- 학교현장의 예방교육 및 대응 강화로 학교폭력은 전반적 감소 추세 -
 - 언어폭력, 사이버 괴롭힘 등에 대한 대응 강화 -

■ 교육부(장관 서남수)는 전국 시·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실시한 **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11월 학교폭력 공시정보 분석결과**를 11월 29일 발표하였다.

○ 이번에 발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17개 시·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*까지 약 454만명의 학생과 초·중·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.

* 2차 실태조사에서는 고3 학생 미참여

○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기존 조사문항 외에 **학교폭력 행동의 원인, 결과 등 7개 문항을 추가(총 22개 문항 조사)**하여 학교폭력 현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,
 -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.

○ 학생 참여 및 피해응답 현황 등 주요 조사 결과는 학교별 예방교육 프로그램 현황,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적 등과 함께 '학교알리미(www.schoolinfo.go.kr)에 공시된다.

■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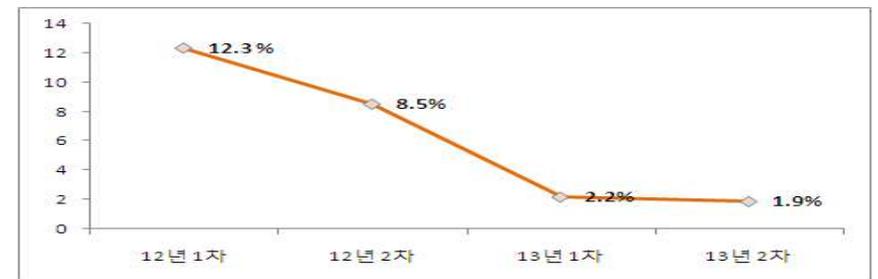
<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>

- (대상) 초 4학년~고 2학년 학생(약 454만명) 및 초·중·고 학부모
- 학생 : 406만명 참여(조사참여율 89.4%)
- 학부모 : 898천명 참여
- (기간 및 방법) '13. 9. 9 ~ 10. 18, 온라인 조사
- ※ '13년 1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피해, 가해, 목격 경험 및 인식 조사
- (내용) 피해.가해.목격 경험 및 인식, 학교폭력 예방 교육 효과 등 (총 22문항)
- ※ 학부모 조사 시범실시(학교폭력 현황 및 예방.대책에 대한 인식 전반)
- (주관) 한국교육개발원(전국 시·도교육감협의회 위탁)

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.9%, 1차 조사 대비 0.3%p 감소

□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7천명이며, 피해응답률은 1.9%로, '13년 1차 2.2% 대비 0.3%p 감소하였다.



※ '12년 1차 172천명 ⇒ 2차 321천명 ⇒ 13년 1차 94천명 ⇒ 2차 77천명(고3 미참여)
 - 동일한 조사방법(온라인 조사) 및 대상(고3 제외)을 기준으로 시계열 비교할 경우, 피해응답률 감소폭은 더욱 커짐

(고3 제외)'12년 2차 313천명(9.1%) ⇒ '13년1차 91천명(2.5%) ⇒ '13년2차 77천명(1.9%)

- 이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 감소 추세는 학교현장에서 **예방교육 강화**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

◆ **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증가**(13년 11월 공식정보 분석)

- '13년 1학기 학교별 학급당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은 203분으로 '12년 2학기 149분 대비 54분 증가(36.4%)
- 또래상담, 자치법정 등 학생중심 예방 프로그램의 학교별 참여 학생 수도 '13년 1학기 103.8명으로 '12년 2학기 76.6명 대비 27.2명이 증가(35.5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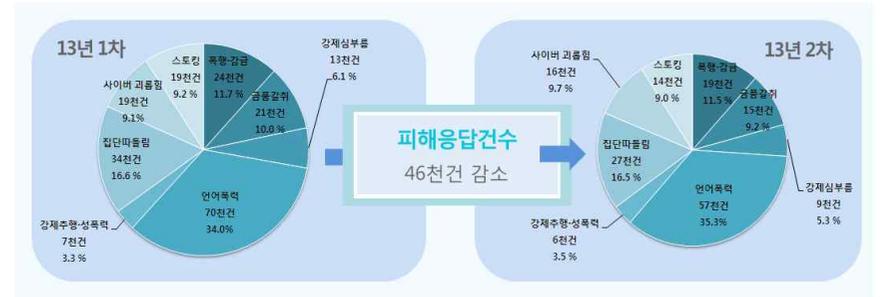
- 아울러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(2.7%), 중학교(2.0%), 고등학교(0.9%) 순으로, 여학생(1.6%)에 비해 남학생(2.2%)의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

언어폭력, 집단따돌림,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별 비중이 높음

- 피해 유형 응답건수(중복응답)는 161천건으로 언어폭력 > 집단따돌림 > 폭행·감금 > 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금품갈취, 강제심부름 등 쉽게 드러나는 학교폭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,
- 언어폭력, 집단따돌림,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,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



- 학교급이 낮을수록 집단따돌림 비중이, 학교급이 높을수록 강제심부름, 폭행·감금의 비중이 높았으며,
 - 중학생은 금품갈취, 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- 주로 쉬는 시간, 점심시간 등 학교 일과시간 중(63.6%)에 교실 등 학교 안(71.6%)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,
 -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(12년2차57%→13년1차72%→13년2차79%)
 - 여학생(16.4%)이 남학생(2.2%)에 비해 사이버 공간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,
 - 중학생의 사이버 공간 피해 비율(9.9%)이 가장 높았다.
 - ※ 사이버 공간 피해 : 중학생(9.9%) > 초등학생(6.6%) > 고등학생(6.5%)
- 피해 응답자 중 55천명의 학생(71.6%)이 힘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
 -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힘들었다 응답 비율이 높았고
 - ※ 힘들었다 응답 비율 : 여학생 81.4% > 남학생 65%

- 집단따돌림(83.8%), 사이버 괴롭힘(82.3%), 스토킹(79.7%)의 경우, 피해학생의 정서적 고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
- 학교폭력 피해 후 가장 많이 든 생각은 '학교 가기 싫었다'(피해 응답자의 19.0%), '우울하고 슬펐다'(12.3%), '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었다'(12.0%) 순으로 응답하였다.



피해 후 도움 요청 응답 76.1%

- 피해 사실을 가족·학교 등에 알렸다는 응답은 76.1% 였으며,
 - 알린 상대는 가족(31.4%) > 학교(23.7%) > 친구·선배(18.2%) 순이며,
 - 학교·선생님께 알렸다는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※ 학교·선생님 신고 : '12년 2차 15.0%→'13년 1차 20.4%→'13년 2차 23.7%
-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학생들은 주로 '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(25.3%), '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'(19.1%), '스스로 해결하려고'(17.7%), '보복당할 것 같아서'(15.4%) 등의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.
 - ※ 기타(9.0%),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(8.9%), 어디에 알려는지 몰라서(4.5%)

가해응답률도 감소, 27.9%가 장난으로 괴롭혔다고 응답 - 가해응답률 1.0%, '13년 1차 조사 대비 0.1%p 감소

- 다른 학생을 학교폭력 등으로 괴롭힌 적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8천명이며, 가해응답률은 1.0%로, '13년 1차 조사 1.1% 대비 0.1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※ '12년 2차 156천명 ⇒ '13년 1차 47천명 ⇒ '13년 2차 38천명(고3 미참여)
 - 동일한 대상(고3 제외) 기준 시계열 비교 시, 가해응답률 감소폭은 더욱 커짐
 (고3 제외) '12년2차 152천명(4.4%) ⇒ '13년1차 46천명(1.3%) ⇒ '13년2차 38천명(1.0%)

- 유형별로는 집단따돌림(28.8%) > 언어폭력(25.8%) > 사이버 괴롭힘(12.2%) > 폭행·감금(9.1%)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.
 - ※ 가해 방법 : 여럿이 가해했다 64.2% vs. 혼자 가해했다 35.8%
- 가해학생의 24.4%(9천명)는 피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.
 - 특히, 학교폭력 가해학생일수록 부모님의 관심, 가족과의 대화가 적고, 가족 간 갈등이 많으며, 학업흥미도가 낮게 나타났다.



- 다른 학생을 괴롭힌 주된 이유는 '장난으로'(29.7%) > '피해학생이 맘에 안 들어서'(23.9%) > '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'(16.8%) > '특별한 이유 없다'(10.2%) > '화풀이·스트레스'(4.3%) 순으로 나타났다.

※ 기타 12.4%, 다른 학생이 시켜서 1.6%, 내 힘을 보여주려고 0.7%, 관심받고 싶어서 0.3%

- 가해학생 중 93.2%(36천명)는 가해행동을 중단했다고 응답했고,
 - 중단 이유는 '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'(43.2%) > '학교의 처분이나 선생님한테 혼나서'(27.0%) > '피해학생이 싫어해서'(12.8%) > '예방교육'(8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

* 피해학생을 만나지 않게 되어 3.5%, 같이 괴롭히던 친구와 멀어져서 2.8%, 경찰에 신고 2.3%

-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·교육조치 등 학교현장의 단호한 대응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실제로 학교폭력을 중단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

학교폭력을 모른 척 하는 방관자 비율 감소

- 학교폭력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*고 응답한 학생은 377천명, 목격응답률은 9.4%로, '13년 1차 조사 7.6% 대비 1.8%p 증가하여, 학교폭력 발생 시 관심을 갖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.

* 설문문항 변경 : ('13년 1차) 다른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나요? → ('13년 2차) 다른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보거나 들은 적 있나요?



-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'모른 척 했다' 응답은 23.9%로 1차 조사 대비 5.0%p 감소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해 방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.

34.4% 학부모, 인터넷 등이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

- 이번에 시범 실시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인식조사 참여 학부모 898천명 중 49.4%(443천명)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: 그렇다(49.4%) > 보통이다(28.1%) > 그렇지 않다(22.5%)

- 주로 TV, 신문 등(40.4%), 주위 사람(25.2%), 학부모연수 등 학교(16.9%), 자녀(16.6%)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,

※ 학부모 656천명(73.0%)이 자녀와 학교폭력 관련 대화 경험이 있다고 응답

- 33.4%(300천명)의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.

※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 : 보통이다(42.2%) > 그렇다(33.4%) > 그렇지 않다(24.4%)

-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인터넷 등 대중매체(34.4%)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였으며,

※ 인터넷 등 대중매체 영향(34.4%) > 경쟁적 학교문화, 학업스트레스(17.0%) > 가정환경(13.7%) > 나쁜 친구(12.9%) > 사회적 분위기(12.3%) > 가해학생 인성이 나빠서(9.7%)

-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선생님·학교(69.8%) >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(13.9%) > 경찰서(9.3%) 순으로 알리겠다고 응답하였다.

-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인성 및 체육·예술교육(14.1%) > CCTV 확대(12.8%) > 건전한 포래 문화 조성(12.7%)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.



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·처분도 '12년 1학기 대비 감소

□ 한편, '학교알리미(www.schoolinfo.go.kr)'를 통해 공시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,

○ '13년 1학기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횟수는 '12년 1학기 2.9회에서 '13년 1학기 2.3회로 감소하였으며, 심의건수도 '12년 1학기 1.4건에서 '13년 1학기 0.8건으로 감소하였다.

※ '12년 2학기와 비교할 경우, 개최횟수와 심의 건수는 각각 4.5%, 14.3% 증가했으며, 이는 학년이 바뀌는 3~4월에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, 피해 학생들의 학교 신고 비중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



□ '13년 1학기 폭력 유형별 전체 심의 현황은 폭행(5,986건, 53.6%), 공갈(760건, 6.8%), 협박(643건, 5.8%), 명예훼손·모욕(602건, 5.4%), 정보통신망상의 음란·폭력·사이버 따돌림(598건, 5.4%) 순으로 많았으며,

○ 사이버 폭력의 심의 비중은 '12년 1학기 2.8%(530건), '12년 2학기 3.7%(363건), '13년 1학기 5.4%(598건)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.

□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는 '12년 1학기 2.0건에서 '13년 1학기 1.1건으로 45% 감소하였으며,

※ '12년 2학기 피해학생 보호조치 1.0건 대비 10% 증가

○ 보호조치 유형별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(11,007건, 82.9%), 일시보호(854건, 6.4%), 치료 및 요양(718건, 5.4%) 순으로 나타났다.('13년 1학기 기준)



□ 학교별 가해학생 선도·교육조치 건수는 '12년 1학기 3.4건에서 '13년 1학기 2.2건으로 35% 감소하였으며,

※ '12년 2학기 가해학생 선도·교육조치 1.7건 대비 29% 증가

○ 선도조치 유형별로는 서면사과(6,893건, 27.0%), 학교봉사(5,021건, 19.7%), 특별교육·심리치료(4,414건, 17.3%)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('13년 1학기 기준)



■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교육청·단위학교별 맞춤형 대책 수립·시행

- 지난 10월 21일 각 시·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시달된 '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「후속업무처리 지침」에 따라
 - 교육청에서는 지역 단위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,
 - 단위학교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내·외 순찰 및 안전대책, 신고체계 점검·개선, 예방교육 활용 등 「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」을 수립·시행 중에 있다.
- 또한, 학교폭력 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든 학교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노력을 살펴본 결과,
 -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, 또래간의 공감·협력·배려하는 활동, 교사-학생 간의 관계 증진, 학부모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활동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로서의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학교·지역사회 등 현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적극 지원

- 아울러,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 발표한 「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」을 관계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,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다음의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- 유형별 비중이 지속 증가*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, 높은 비중**을 차지하는 언어폭력, 집단따돌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여,
 - * 사이버폭력 비중 : ('12. 2차) 7.3% → ('13. 1차) 9.1% → ('13. 2차) 9.7%
 - ** 유형별 피해응답 : 언어폭력(35.3%), 집단따돌림(16.5%), 폭행·감금(11.5%) 順
 -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하고, '건전한 인터넷 이용 캠페인' 등을 지속 추진하며,
 - * 사이버 기기의 건전한 사용·활용 습관 형성 지원
 - * 예방교육 전문강사 육성, '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앱' 서비스 확대('14.3.~) 등
 - 습관화·일상화되기 쉬운 욕설·비속어 등에 대해 지속적인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하고,
 - * 언어습관 자가진단표, 교사용 훈화자료, 교육용 다류영상자료 등 보급
 - * 학교·학급단위 사랑·존중·격려의 대화운동 전개 지원
 - * 욕설퇴치 아이디어 공모제, 교육용 TV 다류 학습지도안 공모 등
 - '교우관계 회복기간제' 모델 마련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집단 따돌림에 대한 회복적 접근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.
- 심각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내실화 등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,
 -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, 교육 및 보호를 위한 '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'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에 구축 할 계획이다.
 - * (당초) '14년 모든 시·도 설치 → (조기구축) '13년 말 모든 시·도(26개 기관) 설치
 - 아울러,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위기학생 등을 지원하는 가정형 Wee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, 맞벌이 부부등을 위한 Wee센터 야간상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.

- 특히 단위학교, 지역사회 등 **현장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**를 위해,
 - 또래보호 등 학생또래 활동, 전 교직원의 교내·외 순찰, 학부모 자원봉사 등 **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**을 지원하는 ‘**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(어깨동무학교)**’를 1,000교(13년)에서 **3,000교(14년)로 확대**하고, 연극·뮤지컬 등 **문화 체험을 통한 예방교육**을 강화할 계획이다.
 - 또한, 학교폭력예방 **우수지역 인증** 등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**경찰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** 형성, 다양한 **학교폭력 예방·근절 활동** 등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- 앞으로도 교육부는 “**학교폭력의 해법은 현장에 있다**는 원칙을 가지고, 지속적으로 **현장과 소통하여 학교 현장의 변화와 노력을 유도**할 수 있도록 하며,
 - **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**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